things change(2030공익활동가)모임 사전 읽기 자료

❒ 일　시: 2014년 09월 16일(화) 19:00-21:00(2시간)
❒ 장　소: 띵크커피 (예정)
❒ 참석자: 약 10명

❒ 예비 후보 주제
: 세대간 격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동가or직원/ 적정기술/ 다양한조합(구성원)/ 원조조화/ 이윤추구/ 반복된 작업/ funding(펀딩)/ 규모/ 태양광/ 환경/ 인권/ ngo연합체 or 국간협력/ 전문성/ 수혜자-제공자간의 격차(원조일치)/ 활동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1인 ngo or 활동가/ 공정무역/ network/ 홍보/ 무급인턴/ 디자인/ 남녀비율/ ngo기관의 지역적집중 등

❒ 5분 근황토크
- 현장 활동가로 단체 혹은 일반 생활을 하면서 겪는 느낌을 형식없이 자유롭게 궁실궁실 이야기함

❒ 이번 모임의 주제
: 지역적 집중(국제개발 진입지역 or 서울-지방간의 격차 등)

❒ 이번 모임의 주제를 위한 읽을거리

❍ 자! 이번 모임의 주제는 국제개발분야와 밀접하게 닿아있거나 혹은 보통 평범한 이야기이거나 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마치 이건 대한민국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우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죠.

❍ 신문기사를 찾았습니다. 부산일보 기사로 지난 5월 27일에 '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좋혀졌다'라는 이름으로 나온 글입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20000&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140527000060

❍ 기사를 보면, 아파트 값이 3배 이하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같은 땅인 것 같은데, 3배라니요! 그리고 3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뉴스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파트 값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간의 격차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 찾아보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8월 26일날 보도한 자료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619975&code=46111201

❍ 제목과 같이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1명은 그 지역병원이 아닌 수도권으로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는데, 꼭 외국인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지난 해 발표된, 수도권과 지방간의 소득유출 격차의 상승(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2870)은 위와 같은 몇 가지의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서울이 지방의 소득을 블랙홀처럼' 빨아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수도-지방 혹은 중심지-주변지간의 격차, 중심지 개발이론에 대한 생각과 환경, 보건, 개발 분야 등에서 지리적 제한성으로 인한 정보부족,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경하여 서울에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지방출신의 활동가뿐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물론, 별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 그렇다면, 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세요. 아래의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시다가 9월 16일 즐거운 마음으로 뵈요 :)

- **[데스크 칼럼] 지방은 내부식민지인가?**
  매일신문/ 김교영 특집부장(2013.11.20.)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448&yy=2013#axzz3CPyDh0dc

- **지방은 식민지다(지방자치 지방문화 지방언론의 정치학, 내부식민지론)/강준만/개마고원**

things change(2030활동가모임) 회의록

❒ 일　시: 2014년 09월 16일(화) 19:00-21:00(2시간)
❒ 장　소: 띵크커피
❒ 참석자: 5명

❒ 이번 모임의 주제: 지역적 집중(국제개발 진입지역 or 서울-지방간의 격차 등)

❒ 예비 후보 주제
세대간 격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동가or직원/ 적정기술/ 다양한조합(구성원)/ 원조조화/ 이윤추구/ 반복된 작업/ funding(펀딩)/ 규모/ 태양광/ 환경/ 인권/ ngo연합체 or 국간협력/ 전문성/ 수혜자-제공자간의 격차(원조일치)/ 활동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1인 ngo or 활동가/ 공정무역/ network/ 홍보/ 무급인턴/ 디자인/ 남녀비율/ ngo기관의 지역적집중 등

❒ 자기소개 시간
-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아, 주제가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됨
-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음

❒ 내용
- 이번 주제인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영토가 작고 서로 도시간의 거리가 가깝다. 하루 생활권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두는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드문 드문 거점 도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 이유로 세금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라고 해도 서울로 대기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없다. 지역소비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소비를 하고 이게 또 환원이 되어야 지역사회에 생기가 도는데 지방은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이 두 번째 이유다.
-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교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보인다.
- 그럼 지방이 점점 빨대 효과 등으로 인해 건조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서울의 경우는 홍대나 사당 등 작은 단위로 자체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합정에 살 경우에, 굳이 잠실에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대구의 경우는 시내가 1개, 광주는 2개, 부산은 2개, 같이 대략 1.5개 정도의 중심지역이 지방 내에 있다. 대구의 경우를 보면 동서로 길게 된 지역으로 동쪽에 사는 사람과 서쪽에 사람이 만나려면 어쨌든 중앙에서 만나야 한다. 중심지의 수가 부족하다.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20대와 30대가 머무르게 하는 요인으로 일자리가 필요한데, 대구의 경우 공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원이나 기타 10인 이상 기업이 없다. 생산시설이 없으니 학

생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40대 50대인 것 같다. 비슷한 경우로 출산 장려도 결국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듯 이것도 그런 투자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랑 엮어서 생각하면 3-5년 내 , 그러니까 임기 내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기다릴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난다. 기업과 사람 모두가 인내가 필요하다. 세종시의 경우도 강제로 사람을 내렸지만 사람이나 기업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대안으로 도시를 특화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강원의 경우는 놀이문화, 경주는 문화, 대전은 IT처럼 특화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도시의 이미지를 현재는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지역을 놓고 키워드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지방색이 필요하다
- 우리 단체의 경우, 파견단원을 뽑을 때, 서울과 지방 모두 홍보를 하지만 대부분 지원자들이 수도권에서 온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비로 숙식 등을 해결하고 교통비 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왜 이런 교육이나 기회들이 서울에만 있는지 안타까워했다.
-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이라는 자긍심이나 그런 것이 없어 보이는데, 지방은 지방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서울의 유대감이 덜 한 것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 하는 한 원인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색에 맞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 내년에는 그 지역에서 모집해서 사람들을 모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낸 단원들도 있다.
- 지방에서는 어쨌든 절대적인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 예전에 직장을 다른 곳에서 다닐 때, 서울은 지사고 지방에 본사가 있었으나 인원이 거의 10%도 안 되는 소수였다. 심지어 서울 사람들도 본사가 서울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기업에게 세금해택이나 뭐 이런 것을 주었지만 어쨌든 복지비용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또 공채를 모집할 때는 지방대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사람들이 지방으로 회사가 이전해서 지방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는 회사의 능력, 질이 떨어지지 않게 쓰냐라는 말도 했었다. 지방대 차별이나 편견 등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귀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시도 하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잇는 제도가 필요하다.
- 지방을 생각할 때, 문화와 행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가들의 취향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잘해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 지방의 특정중에 보수성이 있다. 작년에 전라도에서 3개월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소도시로 갈수록 텃새가 심하다. 이방인에 대해 텃새나 질투 등이 있다. 왜 오느냐, 무엇을 하려고 오느냐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제주도 건축물을 사고 올릴 때 따돌림이 심했다. 분명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좋은 점도 있을 텐데 그런 텃새를 부리면 결국엔 사람들이 튕겨나가게 된다.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갔었는데, 그 주인분이 힘들어했다. 제주도의 문화가 있는데 씨족

사회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응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 인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완전 시골과 어설픈 소도시를 간 적이 있다. 완전 시골의 경우에는 나를 낯설어 하면서도 신기해하고 했는데도 호의적으로 대했다. 하지만 어설픈 소도시의 경우에는 느끼기에 나에게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정적으로 나를 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뉴델리나 그런 큰 도시들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들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다.
- 산한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소유를 실천하는 마을이다. 화성에 있고 실현지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실천태도는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자원분배를 하는 것이다.
- 간디학교 등 지역에도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곳이 존재한다.
-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서울이나 지방에 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다. 경남이나 인천, 충남, 강원도 등등에 이미 많이 있다.

❒ 이외

- 주제가 너무 어렵다. 우선 편안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참가한 것은 아니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모임이라는 것을 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지인 것 같다. 여러 모임이 있지만, 초반에는 열심이지만 깨지는 것을 여러 번 봤다. 처음에는 가볍게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점이나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

❒ 다음 모임

- 일시: 2014년 09월 30일(화), 19시~21시
- 장소: THINK COFFEE(띵크커피)
- 주제: 공익활동분야에서의 남녀비율 등